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2(1)(1) 가는 길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가는 길」의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가는 길」은 3음보, 7·5조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나며,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었고, 시행 배열의 변화를 통해 낭독 속도를 조절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까마귀’, ‘강물’과 같은 객관적 상관을 통해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는 선정 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모두 잘 기억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귀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1. 위 시의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선정 후경의 구조를 취함.
- 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나타남.
- ㄷ. 전반부와 후반부의 시행 배열이 유사함.
- ㄹ.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둠.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2. 위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정 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② 민요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유성음을 이용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행간 겹침으로 시적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3.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3음보의 민요조 전통적 율격이 나타나 있다.
- ②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선정 후경(先情後境)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화자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자연물을 통해 애상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시행의 길이 조절을 통해 낭송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화자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4. 위 시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의 감정을 행간 걸침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유음과 비음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화자의 내면 심리와 외적인 상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 ④ 이별의 상황에서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한 시이다.
- ⑤ 까마귀, 서산, 강물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자연물이다.

5.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시의 형태적 안정감을 높이고 있다.
- ②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통해 경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의도적인 행간 걸침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활용하여 이별로 인한 안타까움과 슬픔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선경후정(先景後情)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여 임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신유형

「가는 길」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태도 및 시의 분위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2연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망설임 등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나며, 3~4연에서는 화자의 심리와 대조를 이루는 외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는데, 이를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특히 3~4연의 '까마귀'와 '강물'이 이별을 재촉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객관적 상관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학습활동에 제시된 「슬픔이 기쁨에게」와 함께 출제되기도 했으니 두 시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6~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귀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6. 위 시의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심리적 부담감과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여준다.
- ② ㉡은 시적 화자가 현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감을 암시한다.
- ③ ㉠, ㉡ 모두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은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나, ㉡은 임과의 만남을 체념하고 있다.
- ⑤ ㉠와 ㉡은 객관적 상관물로서 자연친화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7. 위 시에서 시행 배열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 ㉡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① ㉠은 3음보이며, ㉡은 4음보이다.
- ② ㉠은 내면 심리를 보이며, ㉡은 외적 상황을 보인다.
- ③ ㉠에서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며, ㉡에서는 망설임이 보인다.
- ④ ㉠은 빠른 호흡으로 읽으며, ㉡은 느린 호흡으로 읽으면 좋다.
- ⑤ ㉠은 상당히 안정감이 있고, ㉡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8~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귀니다.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8. <보기>를 참고하여 위 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소월의 '가는 길'은 이별의 안타까운 상황과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인해 차마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화자의 심리를 다양한 형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① 1연은 행의 의도적 분리를 통해 시간적 거리감을 주어 망설이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② 2연은 문장부호를 활용해 아쉬움과 그리움 등이 얹힌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군.
- ③ 3연은 어둡고 슬픈 이미지를 지닌 자연물을 활용해 이별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군.
- ④ 4연은 반복적인 표현을 활용해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⑤ 3, 4연은 시행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느린 호흡을 유도해 이별의 안타까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군.

9. 위 시의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전통적 시상 전개 방식인 선경후정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임과 이별하고 임을 두고 길을 떠나야 하는 처지이다.
- ③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강물'은 떠남을 재촉함으로써 이별의 아픔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 ⑤ 1연의 첫 행을 1음보로 배열하여 호흡의 속도를 느리게 하여 망설임의 정서를 표현했다.

10. 위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자아의 갈등이 대칭 구조로 표현되었고 '강물'은 실제 현실의 강물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 ② 시적화자의 심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표현된 '까마귀'는 화자가 바라는 상황을 암시하는 소재가 될 수 있다.
- ③ 화자 자신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구성하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반복하면서 운율을 드러내고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 하고 있다.
- ⑤ 1, 2연은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심정을 담아 느리게 읽고 3, 4연은 빨리 떠나라고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담아 낭독의 속도를 빠르게 읽을 때 화자의 심리가 잘 표현될 수 있다.

11. <보기>를 고려할 때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교사: 시를 낭송할 때에는 시의 특정한 호흡과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어조를 사용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때, 시행 배열은 시를 낭송할 때의 호흡에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시를 어떻게 낭송할 수 있을지 의견을 말해 볼까요?

- ① 1연은 한 행에 각각 1음보를 배열하여 느리게 낭송하고, 그리움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낭송해야겠어.
- ② 2연은 시행의 길이가 짧으므로 느리게 낭송하고, 말줄임표에 유의하여 망설임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낭송해야겠어.
- ③ 3연은 한 행에 음보를 길게 배열하여 낭송의 속도를 점차 빠르게 하고, 이별하려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게 낭송해야겠어.
- ④ 4연은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므로 빠른 호흡을 통해 화자의 조급한 마음이 잘 드러나게 낭송해야겠어.
- ⑤ 1~4연은 시행의 길이가 짧았다가 길어지는 시행 배열을 통해 이별의 아쉬움을 드러내는 애상적 어조로 낭송해야겠어.

앞 ㉠강(江)물, 뒤 강(江)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 김소월, <가는 길>

(나)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들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12~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진다고
지저귀니다.

1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선경후정의 구조로 시상을 전개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유사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구조적인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긍정적인 대상이고, ㉡은 화자에게 절망적인 사실을 전하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있는 공간적 배경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있는 공간에 슬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에게 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자연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동경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로 하여금 옛 고향의 모습을 상기시킴으로써 화자가 현재 느끼고 있는 쓸쓸함과 그리움의 정서를 극대화 하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에게 조바심,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심어 주는 대상이다.

<보기>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는 슬픔에 대한 성찰을 통하여 이기적인 삶의 자세를 반성하고,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남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그 아픔을 돌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의 청자인 '너'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수 있다. 정호승 시인은 슬픔에 대해 '모든 진정한 사랑에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랑은 슬픔을 어머니로 하고 눈물을 아버지로 한다.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음으로써 슬픔의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고, 이와 대비되는 사랑의 부정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군.
- ②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우리의 이기심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③ '가마니 한 장'은 타인의 아픔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을 말하는 것이겠군.
- ④ '기다림'은 무관심을 극복하고, 타인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지니기 위해 필요한 과정일 수 있겠군.
- ⑤ '슬픔의 힘'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시인의 생각이 반영된 표현이겠군.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ㄴ.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와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사용되었다.

ㄹ. 유음 ‘ㄹ’과 비음 ‘ㄴ, ㅇ, ㅁ’을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4연 ‘강(江)물’, ‘따라오라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ㄱ. 1~2연에서 이별의 내면적 상황을, 3~4연에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先境後情)이 아니라 선정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한다.

ㄷ. 전반부에는 한 행이 1음보를 이루고 후반부에는 한 행이 3음보를 이루고 있다. 시행 배열을 달리함으로써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정답 ④

위 시에서 공감각적 이미지는 찾을 수 없다.

① 1~2연에서 이별의 내면적 상황을, 3~4연에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정 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3음보, 7·5조의 민요적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유음 ‘ㄹ’과 비음 ‘ㄴ, ㅇ, ㅁ’과 같은 유성음을 이용해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⑤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에서 행간 걸침을 사용하여 화자의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3. 정답 ④

화자의 감정을 대변해주는 자연물이 아니라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자연물을 통해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고 있다.

①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와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사용되었다.

② 위 시는 유음 ‘ㄹ’과 비음 ‘ㄴ, ㅇ, ㅁ’을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4연 ‘강(江)물’, ‘따

라오라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 1~2연에서 이별의 내면적 상황을, 3~4연에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정 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위 시는 전반부에는 한 행이 1음보를 이루고 후반부에는 한 행이 3음보를 이루고 있다. 시행 배열을 달리함으로써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여 전반부에서는 화자의 아쉬움과 망설임을, 후반부에서는 자연물이 떠나기를 재촉하는 상황을 통해 느껴지는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4. 정답 ⑤

까마귀, 서산, 강물은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지 않는 자연물이다.

①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에서 행간 걸침을 사용하여 화자의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② 위 시는 유음 ‘ㄹ’과 비음 ‘ㄴ, ㅇ, ㅁ’을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거두었는데, 특히 4연 ‘강(江)물’, ‘따라오라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등에서 많이 나타난다.

③ 1~2연에서 이별을 망설이는 내면 심리가 드러나며, 3~4연에서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이 나타나므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위 시는 이별의 아쉬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5. 정답 ④

‘까마귀’, ‘강물’과 같은 객관적 상관물을 통해 화자의 슬픈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이 시에서 처음과 끝에 유사한 내용의 구절이나 문장을 배치하는 수미상관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와 같이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이 사용되었으나, 경건한 분위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그립다 /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에서 행간 걸침을 사용하였으나 화자의 망설임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지 화자의 태도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1~2연에서 이별의 내면적 상황을, 3~4연에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경후정

(先境後情)이 아니라 선정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한다.

6. [정답] ③

㉠과 ㉡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임과 이별하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① ㉠은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는 대상으로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아쉬움을 심화하고 있으나, 화자의 미래지향적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② ㉡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소재로, ㉠과 마찬가지로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여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대상이다. 화자가 현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위 시에 나타나지 않는다.

④ ㉠과 ㉡는 모두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⑤ ㉠과 ㉡는 화자에게 이별을 재촉하여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대상으로 객관적 상관물이 맞으나, 자연친화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②

㉠은 화자의 망설임과 같은 내면 심리가 드러나며, ㉡는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이 나타난다.

① ㉠과 ㉡ 모두 3음보이다.

③ ㉠에서 이별에 대한 망설임이 나타나며, ㉡에서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④ ㉠이 느린 호흡, ㉡이 빠른 호흡으로 읽으면 좋다.

⑤ ㉠과 ㉡ 모두 3음보의 안정된 운율을 나타낸다.

8. [정답] ⑤

3, 4연에서 시행의 길이를 길게 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빠른 호흡을 유도해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1연의 '말을 할까 / 하니 그리워' 부분에서 행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시간적 거리감을 줌으로써 화자의 망설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2연에서는 '……'와 같은 문장부호를 활용해서 아쉬움, 그리움, 미련 등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에서는 '까마귀'와 같은 어둡고 슬픈 이미지

를 지닌 자연물을 활용하여 이별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④ 4연에서는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에서 반복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9. [정답] ①

위 시는 1~2연에서 이별의 내면적 상황을, 3~4연에서 이별의 외면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선정후정(先境後情)이 아니라 선정후경(先情後境)의 구조를 취한다.

② 화자가 떠나는 것을 망설이고 있고 '까마귀'와 '강물'이 가라고 재촉하는 상황으로 보아 임과 이별하고 떠나야 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3연에서 '까마귀'는 어둡고 슬픈 이미지로 이별의 분위기를 나타내며, 이별을 재촉하고 있다.

④ 4연에서 '강물'은 떠남을 재촉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슬픔, 아픔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⑤ 1연의 첫 행을 1음보로 배열하여 낭독의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화자가 느끼는 망설임의 정서를 표현했다.

10. [정답] ⑤

1, 2연은 한 행이 1음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별을 망설이는 화자의 심정을 담아 느리게 읽고, 3, 4연은 한 행이 3음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담아 빠르게 읽으면서 화자의 심리를 느낄 수 있다.

① 화자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만, 대칭 구조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② '까마귀'는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바라는 상황을 암시하지 않는다.

③ 위 시는 화자의 경험을 서사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는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④ 시의 처음과 끝을 유사한 통사구조로 반복한 수미상관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11. [정답] ③

3연은 한 행이 3음보를 이루고 있어 낭독의 속도를 높이고 있으나, 이별하려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재촉하는 외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별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심화된다.

① 1연은 한 행에 각각 1음보를 배열하여 낭송 속도를 늦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별의 아쉬움, 그리움이 드러난다.

② 2연은 시행의 길이가 짧아 낭독의 속도가 느려진다. 또한 말줄임표를 통해 여운을 주며 망설임과 아쉬움이 드러난다.

④ 4연은 시행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빠른 호흡을 통해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이 드러나며 이로 인해 화자의 조급한 마음이 나타난다.

⑤ 1~4연에서 시행의 길이를 조절함으로써 이별에 대한 아쉬움과 망설임,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에서 느껴지는 조급함과 안타까움 등이 드러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2. 정답 ④

(가)에서는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나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에서 유사한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조급함,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나)에서는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 /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등에서 반복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의지가 강조된다.

① (가)에서는 ‘흐름디다려’에서 지역 방언이 나타나고 있지만, (나)에서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②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가)에만 해당한다.

③ (가)에서는 선경후정이 아니라 선정후경의 구조가 나타나며 (나)에서도 선정후경의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수미상관은 두 시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13. 정답 ⑤

㉠과 ㉡은 화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별의 상황을 강조함으로써 화자에게 조바심, 부담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심어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과 ㉡ 모두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로 부정적인 대상이다.

② ㉠과 ㉡ 모두 화자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심화한다.

③ ㉠과 ㉡ 모두 자연에 대한 인식과는 관련이 없다.

④ ㉠과 ㉡ 모두 고향에 대한 정서와는 관련이 없다.

14. 정답 ①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은 대상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음으로써 슬픔의 긍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나, <보기>의 ‘모든 진정한 사랑에는 슬픔이 있다’나 ‘사랑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고통 때문이다.’를 통해 사랑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는 <보기>에서 언급한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남의 아픔에 무관심하거나 그 아픔을 돌볼 줄 모르는’ 이기심과 관련이 있다.

③ ‘가마니 한 장’은 ‘자신만의 안일을 위해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사회에서 타인의 아픔에 대해 슬픔을 느끼고 돌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관심을 말하는 것이다.

④ ‘기다림’은 ‘진정한 사랑에 슬픔이 있다’는 <보기>의 설명과 같이 타인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삶의 태도를 지니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슬픔의 힘’은 ‘사랑은 슬픔을 어머니로 하고 눈물을 아버지로 한다’는 <보기>의 표현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고통과 슬픔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